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



보도	2022.12.2.(금) 14:00	배포	2022.12.2.(금)		
담당부서	일반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	책임자	국 장	양진호	(02-3145-7050)
		담당자	팀 장	문선기	(02-3145-7065)

금감원, 「2022년 은행지주·은행 내부통제 워크숍」 개최

I. 개 요

- 금융감독원은 '22.12.2일(금) 14시,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은행지주(8개사)·은행(20개사)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음
 -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되는 것으로, 준법감시인 25명* 등 내부통제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하였음
 - * 은행 부행장 8명, 지주 부사장 2명, 전무·상무 등 15명
- 금번 워크숍에서 금감원과 은행권은 최근 대형 금융사고의 발생 원인을 되짚어보고,
 - 11.4일 발표한 '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'의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내부통제 문화 조성 및 인식 전환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음
- 특히, 이번에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인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* 특강 코너를 마련하였으며,
 - *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,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선임연구위원
- 금융의 디지털 전환,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하였음

은행지주·은행 내부통제 워크숍 개요 (14시~16시 30분)

Session	내 용	발 표
I	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향후 감독·검사 방향	금감원
II	외부 전문가 특강 ①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이사의 책임과 내부통제 ②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실태와 개선 방향	정준혁 교수(서울대) 이성복 박사(자본시장연구원)
III	내부통제 모범사례 발표 ① 알고리즘을 활용한 금융사고 위험 조기 적출 ② 내부통제 자체점검 운영 현황 및 계열사 교차점검 제도	하나은행 광주은행
IV	최근 주요 이슈 및 당부사항 ① 소개영업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 ② 최근 금융환경에서의 금융사고 유형 및 시사점	금감원 금감원

II. 워크숍 주요 내용

- 금일 워크숍은 크게 ①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, ②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내부통제 상 대응과제, ③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방향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음

(①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)

- 금감원은 올해 내내 끊이지 않았던 각종 사건·사고의 원인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향후 추진일정을 설명하였음
- 금감원은 은행권과의 적극적인 인식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면서,
 - 이번 혁신방안이 내부통제 문화 조성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고경영진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음

(② 금융의 디지털화와 내부통제)

- 금융의 디지털화와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의 특강과 하나은행의 사례발표가 진행되었음
- 정준혁 교수는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해 금융회사의 영업 양태가 근본적으로 변화*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,
 - *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와의 관계, 금융회사와 제3자(금융플랫폼 등)와의 관계,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과의 관계 등
 - 내부통제 역시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적시에 파악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
- 하나은행은 디지털 기술의 내부통제 활용의 관점에서 머신러닝 기반의 금융사고 조기 적출 시스템 운영사례를 소개하고,
 - 향후 발전과제로 시스템 고도화 및 전문인력 확충 등을 제시하였음

(㉓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)

-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와 관련하여,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선임연구위원의 특강과 광주은행의 사례발표가 진행되었음
 - 이성복 박사는 은행지주가 그룹 차원의 시너지 사업전략·영업을 강화하는 가운데 내부통제는 여전히 개별 자회사 중심임을 지적하고,
 - 지주의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제고방안으로 그룹 차원의 3선 내부통제 체계 구축, 그룹 내부통제 조직간 소통·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음
 -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금감원은 소개영업*과 관련한 지주의 내부통제 자체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을 당부하였음
- * 고객이 다른 계열사 판매 금융상품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고객을 계열사에 소개
- 광주은행은 자회사 공통 위험요인에 대한 지주의 통할 기능 수행*, 그룹내 내부통제 부서간 소통 및 협업 사례를 공유하였음
- * 지주가 각 계열사의 내부통제 자체점검 결과를 취합 → 공통위험 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전 계열사 대상 2차 점검 실시

Ⅲ.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- 금일 워크숍은 각종 사건·사고로 인해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개최된 것으로,
 -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그간의 문제점과 향후 도전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으며,
 - 향후 은행지주 및 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문화를 마련해 나가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함
-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며,
 - 적극적인 내부통제 감독·검사를 통해 은행지주 및 은행이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음